

희망을 말하다

Endless Story_김진언 전 2009.12.8~2009.12.22
관훈갤러리

예술은 오래전부터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김진언 역시 이러한 개념을 작품에 이입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에서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재료이다. 작가는 알루미늄을 캔버스로 대신한다. 그가 금속을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지니는 견고함과 연마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광택 때문이다. 작가는 샌드페이퍼(사포)로 표면을 갈아낸 후, 그 위에 색을 채운다.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굵어내기를 반복하며 알루미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형상을 연출할 수 있고, 홀로그램적인 착시 효과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의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화면 속에서 날개를 단 채 신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더욱 완벽한 모습을 갈망하며 신의 위치에까지 이르려는 왜곡된 형상이다.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의 세계를 담아내며 이상적 세계를 구현한다. 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물들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상적 세계를 갈구하고, 그곳에서 다르려 애쓰지만 좌절을 맛보고, 고독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 가다가도 또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자신 말이다.

한편, 작가는 우리와는 분리될 수 없는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끌어오기도 한다. 차가운 저질의 알루미늄이 바탕이 된 모노톤의 도시에 화려한 불빛으로 드리워진 도시 풍경과 그 곳을 거니는 활발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공허함과 고독감이 공존하고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해 항상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내레이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where over the rainbow》시리즈와 《Paradise》 등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작가는 관객에게 희망과 꿈이 잊혀지 않길 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Endless Story'를 들려준다. ● 이혜린 기자



김진언 (Endless Story#7) 2009